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주 제:	“자, 너희도 떠나겠느냐?”	“연중 제 21 주일 ”	2009년 8월 23일
복음 묵상:	[요한 6,60-69]	[여호 24,1-2 7.15-17.18 ㄴ]	[에페 5,21-32]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분이 베푸신 빵의 기적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현세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유혹에 시달릴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은근히 ‘옛사람’의 교묘한 유혹의 소리가 귓전에서 맴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저를 지켜줍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응답한 제자 베드로의 응답! 서품성구로 정하고 사계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처럼 말씀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도 굳이 외면하고 피할 때가 많았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기에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가르침을 깊이있게 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커 봐야 압니다. 부모님이니까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체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 위대한 신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종종걸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 합니다. 육적인 것은 실로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영적인 것만이 생명을 준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주님께서서는, 당신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막지 않습니다. 또 떠나는 이를 억지로 붙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존중해주신 주님의 눈높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다시금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특급사랑이기를 바라며 무조건 주님을 향해 내달릴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님께 청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의정부 김 경인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 환영 새로운 가족:

- 지난주부터 정 상준 마이클 형제님이 베이스에 입단하시어 그동안 부족했던 베이스를 확고히 자리매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 금주부터 김 상미 마리아 자매님(로스알토스 구역 전문 반주자)께서 성가대에 입단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함께 주님의 도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지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알림:

KAMSA 제 20 회 청소년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금난세 지휘자)

- 8월 29일(토) 오후 8시
- 401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Herbst Theatre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 9월 20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이 말씀을 못마땅해하는 것을 알아 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 갔으며 더 이상 따라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 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분 명상

♡ 나로 존재하는 것 ♡

- 버니 S. 시겔의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 중에서 -



췌이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어
이제나 저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통은 바로 췌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압력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 이제 막 씨앗을 부려놓고
열매부터 따겠다고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이 자라는 봄철과 뜨거운 여름 햇빛을 거쳐야
비로소 토실한 가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결과물이 있기까지 견디어 내야하는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인내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끝내
췌에 머물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